

관절경을 이용한 슬관절강직의 유착제거술 -증례보고 5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배 대 경·차승균

= Abstract =

Arthroscopic Adhesiolysis of Postoperative Knee Ankylosis - Case Report 5 Cases -

Bae Dae kyung, M.D. and Cha Seung Gyu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5 patients, who had severe limitation of knee motion following open operative procedures, and were treated by the percutaneous release of adhesions under arthroscopy, were reviewed. The range of the knee motion and function were markedly improved. Therefore, intra-articular release of adhesions under arthroscopic control was assumed very useful

Key words: Arthroscopy, Adhesiolysis.

서 론

슬관절 및 슬관절주위의 수술적치료후 슬관절의 강직을 초래하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1,2)} 슬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은 슬관절자체나 주위의 수술 또는 외상후 발생되는 합병증의 하나이며 슬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매우 중요하다.³⁾ 이러한 운동범위 제한과 통통을 유발하는 강직은 관절내의 유착형성이나 관절막의 경축(contracture), 대퇴사두근의 유근착 및 단축에 기인하며, 이는 수술시 손상이나, 감염, 술후 장기간의 고정 및 부적절한 물리치료의 결과로 발생한다. 굴곡장애가 생긴후 초기에는 적극적인 물리치료나 뼈로마취하 도수굴곡(manipulation)을 시도하여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수개월이 지나서는 이러한 방법은 대개 효과가 없으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 슬관절굴곡을 증가시키고 통통제거를 위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이 보고되고 있으나⁴⁾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된 보고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술후 발생한 관절강직환자 5례에서 관절경을 사용 유착제거술을 시행한후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우수한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저자들이 치료한 5례는 1983년 5월부터 1985년 7월 사이에 치료를 시행하였던 환자들로써 관절경을 이용하여 유착제거술을 시행한후 최장 2년 1개월에서 최단 5개월까지 추적 조사하였다. 슬관절이나 그 인접부에 수술을 시행후 슬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한 환자중 물리치료로 굴곡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 예에서 마취하 피동적 굴곡(pассив knee flexion)이 60° 이하인 환자에서 시행하였다. 관절강직 발생시 부터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을 시행한 기간은 4개월부터 4년(평균 12개월) 이었으며 술후 즉시 굴곡 및 신전운동을 시행하였다.

증례 1.

환자: 이○돈 M 36

주소: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

병력: 약 5년전부터 시작된 양측 슬관절의 통통을 주소로, 류마チ스성 관절염의 진단하에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후에도 통통이 지속되며 관절종창이 있어 3년전 본원서 좌측 슬관절 확액막 제거술을 시행후 술후 5개월째 운동장애를 주소로 내원
이학적 소견: 운동범위 0~55°

수술소견 : 경도의 연골손상, 관절내 섬유성 유착
수술장내서 운동범위 $0 \sim 135^\circ$
술후 운동범위 : 술후 2년 1개월째 운동범위 $0 \sim 135^\circ$ 로 정상

증례 2.

환자 : 김○룡 M 44

주소 : 좌측 슬관절 운동장애

병력 : 추락사고로 인해 좌측 슬개골에 분쇄상골
절을 입고 수상후 10일만에 본원에 내원 K 장선 고
정 및 wiring을 시행 받은 환자로써 술후 4개월째 좌
측 슬관절의 운동장애로 내원.

이학적 소견 : 좌측 슬관절 굴곡구축 0° , 최대굴

골 45° (Fig. 1).

수술소견 : 관절강내 및 관절막의 광범위한 섬유성
유착. 슬개골 관절면-평활. 수술장내의 운동범위
 $0 \sim 135^\circ$

술후 관절운동범위 $0 \sim 130^\circ$ (Fig. 2).

증례 3.

환자 : 윤○현 F 51

주소 :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

병력 : 약 1년전부터 시작된 다발성 관절통으로
인해 대증적 요법을 시행받았던 류마チ스성 관절염
환자로써 양측슬관절의 굴곡구축 및 심한 통통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양측 인공슬관절 전대치술 (in-

Fig. 1. preoperative state.

Fig. 2. postoperative state, knee in full flexion.

sall-Burstein type) 을 동시에 시행한 환자로써 술후 5개월째 지속되는 좌측슬관절 강직을 주소로 내원
이학적소견 : 좌측 슬관절 굴곡구축 20° , 최대 굴곡 45° ,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 정상(Fig. 3).

수술 소견 : 관절강내의 다양한 섬유성 유착, 술장내서 운동범위(관절경을 사용한 유착제거와 manipulation 후) $0 \sim 125^{\circ}$.

술후 운동범위 $0 \sim 120^{\circ}$ (Fig. 4).

증례 4.

환자 : 김○녀 F 26

주소 : 우측 슬관절 강직

병력 : 10개월전 교통사고로 인해 개방성 골반골절(불안정성, Malgaine type) 및 우측 대퇴부에 개방성 간부골절과 회음부의 심한 연부조직 손상으로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과 호프만씨 외고정술(골반 및 대퇴부) 및 colostomy를 시행후 연부조직 치유와 골절유합까지 약 5개월간 고정을 시행한 환자로써 우측 슬관절 운동장애를 보였음.

이학적 소견 : 슬관절 굴곡구축 5° , 최대 굴곡 20° (Fig. 5).

수술소견 : 대퇴사두근의 구축 및 관절막과 관절내 섬유성 유착, 관절경적 유착제거술 및 lateral retinacular release를 시행. 수술장내서 술후 운동범위 $0 \sim 100^{\circ}$

수술후 운동범위 : $0 \sim 95^{\circ}$ (Fig. 6).

증례 5.

환자 : 이○숙 F 25

주소 : 좌측 슬관절 강직

Fig. 3. preoperative state.

Fig. 4. postoperative state, knee in full flexion.

Fig. 5. preoperative state.

Fig. 6. postoperative state, knee in full flexion.

병력 : 약 20년 전 좌측 슬관절 좌상 및, 10년 전 경부 결핵성 임파선염을 앓은 환자로써 좌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장애로 결핵성 슬관절염 진단 하에 4년 전 개인병원서 수술적 치료 후 계속되는 운동장애를 주소로 내원

이학적 소견 : 굴곡구축 10°, 최대 굴곡 60°

수술소견 : 슬관절 관절간격 협착 및 대퇴골 medial compartment의 퇴행성 변화, 관절내 섬유성 유착과 주의 연부조직구축, 출후 수술장내의 운동범위 0 ~ 95°

수술후 운동범위 : 0 ~ 40°

수술수기

전신마취 혹은 척추마취 후 시행하며 술전 모든 환자의 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다. 슬개골의 상외측에 puncture needle을 슬관절강내에 삽입하고 생리식 염수로 슬관절강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킨다. 이때 들어가는 생리식 염수의 양을 기록하고 이러한 확대가 유착의 미세한 부분을 유리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히 시행한다. 작은 절개를 슬관절 외측으로 내어 관절경의 sleeve와 blunt obturator를 사용 patella 아래에서 suprapatella pouch로 밀어 넣은 후 좌우로 유착된 부분을 먼저 박리하고 양측 gutter와 medial and lateral joint space 순으로 gentle adhesiolysis를 시행한다. 각각 술전 상태에 따른 병적 판찰은 다르게 나타나며 본례들에서는 표 1과 같

Table 1. Patients in the Study Group

- Case	Age / Sex	Previous Procedures	Interval Before Treatment(yrs + mos)	Preoperative motion	Additional procedure	Follow-up (yrs + mos)	Final Motion
1	36/M	Synovectomy(RA)	0 + 5	0 - 55	-	2 + 1	0 - 15
2	44/M	Patella open reduction & internal fixation	0 + 4	0 - 45	-	0 + 5	0 - 130
3	51/F	Total knee replacement	0 + 5	20-45	-	0 + 4	0 - 120
4	26/F	Open femur fracture & external fixation	0 + 10	5 - 20	Retinacular release	0 + 6	0 - 95
5	25/F	Incision & drainage (Tbc.Knee)	4 + 3	10-20	Yount op.	0 + 9	0 - 40

다. 또한 유착의 정도는 Sprague⁷⁾ 등에 의하면 정도에 따라 관절내유착만 경한정도, suprapatella pouch까지 유착으로 소실된 경우, 관절막외 유착이 동반된 경우로 나누었으며 본례들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슬개관 내측에 작은 절개를 시행하고 blunt trochar 를 삽입하여 관절경으로 이미 확인된 유착 band나 sheet 등을 제거한다. 필요에 따라 curved surgical scissor를 삽입하여 절개를 하기도 한다. 유착의 제거는 suprapatella pouch로 부터 시작하여 슬개골의 운동범위에 따라 필요한 절개를 시행한다.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을 시행후 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고 관절경을 통해 관절내의 상태를 검사한다. 그후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관절을 세척하고 하지에는 솜과 탄력붕대로 bulky하게 dressing을 한다. 술후 즉시 SLR, Q-setting 및 관절운동을 시작하고 그정도는 통통에 따라 조절하였다. 그외에도 splint를 90° 이상 굴곡 및 신전상태로 만들어 하루 2회 교대로 사용하였다.

결 과

술후 최대운동범위를 얻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개월 이었으며 술전운동범위와 술후 일정기간후 최대운동범위는 표 1과 같다. 술후 즉시 얻을 수 있는 관절운동범위와 마지막 관절운동 범위는 증례 5를 제외하고는 큰차이가 없었으며 술전운동 범위 보다는 30-95°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증례 4의 경우 부가적 수술로 lateral retinacular release를 시행했고 증례 5의 경우 Yount op. 을 시행한 경우, 순수한 관절경적 유착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보다는 그 예후가 못한편이며 이는 Sprague⁷⁾ 등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증례 1, 2, 3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만으로도 운동범위의 현저한 증가뿐 아니라 환자자신의 주관적 증상의 완화도 있었으나 증례 4의 경우는 심한 외상 및 연부

조직 손상으로 장기간 슬관절운동을 하지 못한 것과 연부조직의 구축이 심하여 관절경적 유착제거술 후에 retinacular release을 부가하여 시행함으로써 90° 이상의 굴곡을 얻을 수 있었다. 증례 5의 경우는 관절내 꿀조직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관절강내외의 심한유착으로 인해 술후 운동범위의 증가가 적으며, 이는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로 굴곡범위를 증가시킬 수 없었으며, 적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고 찰

술후 발생되는 관절강직의 치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1,2,3,4,5,6,7)} 그원인 또한 다양하여 오랜기간의 고정 부적절한 물리치료 및 수술의 양상 등 뚜렷한 이유이 외에도^{1,2,3,4,5,6,7)} 환자자신의 사회적위치, 직업 및 정서적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산재나 교통사고와 같이 술후 보상문제등이 결부되었을 시 타 경우보다 재활이 늦어지는 경우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한다.

증례 4과 같이 슬관절 자체의 질환이 아닌 대퇴골 간부골절에 동반된 대퇴사두근의 구축 및 유착으로 온경우도 있다. 관절내 수술적 치료후 생기는 강직은 관절내의 유착이 주원인이 되며 때로는 관절강밖의 유착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경적 유착제거술로 치료가 용이하여 본례 1, 2, 3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좋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면 입원기간의 단축뿐 아니라 고정이 필요없고 술후 2-3일내 즉시 관절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각자의 경우 그 유착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술후 결과에는 관절내유착의 경우 큰차이가 없다고 하며^{1,2,3,7)}, 본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수술후 기

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저자들은 평균 4~5개월째 시행하였던바 이는 초수술후 일정기간의 상처치유기간 및 물리치료기간과 일상생활의 적응후에도 문제가 남는 시기에 해당한다. Sprague⁷⁾ 등에 의하면 수술시기는 초수술후 2~3개월째, 혹은 관절운동범위의 회복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는 시기에 시행함이 좋다고 하였으며 이는 무리한 물리치료로 인한 대퇴-슬개골 관절면의 연골손상을 극소화 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본례들의 결과에서와도 같이 술후 발생한 강직에 대한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은 매우 유용한 수술이라 할수 있다.

결 론

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에서는 술후 발생한 슬관절 강직환자 5례를 관절경을 이용한 유착제거술을 시행한바, 술후 운동범위의 현저한 증가 및 통통의 감소등 좋은 결과와 술식이 간단하여, 입원기간 단축등의 장점이 있었기에 그 결과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REFERENCE

- 1) Milgram, J.E.: *The reconstruction of some extensor mechanism in the extremities*. In AAOS ICL, Vol. 13. Ann Arbor, J.W. Edward, 1956.
- 2) Nicolas, J.A.: *The five-one reconstruction for the anteromedial instability of the knee; Indication, technique and the result in fifty-two patients*. J. Bone Joint Surg., 55A : 899-922, 1973.
- 3) Nicoll, E.A.: *Quadriceps plasty*. J. Bone Joint Surg. 45B 483-490, 1963.
- 4) O'Connor, R.L.: *Arthroscop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77.
- 5) Sisk, T.D.: *Ankylosis and deformity*. In Crenshaw A.H.(ed): *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ed 6, Vol. 1. Saint Louis, C.V. Mosby Co., 1980. p. 1146.
- 6) Slocum, D.B. and Larson, R.L.: *Pes anserinus transportation. A surgical procedure for the control of rotatory instability of the knee*. J. Bone Joint Surg. 50A: 226-242, 1968.
- 7) Sprague, III., N.F., et al: *Arthroscopic treatment of postoperative knee fibroarthritis*. Clin. Orthopedics. No 166: 165-172, 1982.